

자연어 한 줄에 디자인 똑딱... 빅테크, '그래픽 AI' 경쟁 격돌

'바이브 디자인' 시대 전환

오픈AI, 新 이미지 생성 AI 선별 예정
非영어권 언어 렌더링 장벽 허물어
구글, '나노바나나 2' 압도적 성과
앤스로픽, '클로드 디자인' 공개
디자인 초안부터 실제 구현까지
어도비·캔바 등도 AI 플랫폼으로



자연어 명령만으로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이브 디자인'을 둘러싸고 빅테크들이 잇따라 격돌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자연어 명령만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는 이른바 '바이브 디자인(Vibe Design)'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사용자가 추구하는 분위기와 맥락을 AI가 파악해 결과물을 내놓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그래픽 AI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그래픽 생성 AI 신제품을 공개하며 '바이브 디자인'을 차세대 핵심 경쟁력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미

지 생성 AI 도구를 출시할 예정으로, 업계에는 최근 AI 블라인드 테스트 플랫폼 '아레나 AI'에 올라온 '덕테이프(Duck-Tape)'를 해당 모델로 추정하고 있다.

덕테이프는 그간 이미지 생성 AI의 고질적 난제로 꼽혔던 한글 등 비(非)영어권 언어의 렌더링 장벽을 완벽에 가깝게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모델들이 한글 문자를 입력할 때 글자가 뭉개지거나 오타가 빈번했던 것과 달리, 덕테이프는 복잡한 문장은 물론 간판, 말풍선, 손글씨 노트까지 오류 없이 구현한다.

업계에서는 덕테이프가 생성한 광고 시안의 품질이 전문 디자이너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AI가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실적 반등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나노바나나(Nano Banana)' 시리즈를 출시해 이미 바이브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줬다. 최신 모델인 '나노바나나 2'는 제미니의 실제 세계 지식 기반을 활용하고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최신 정보나 특정장소, 실존하는 사물 등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 질감, 복잡한

패턴의 직물 등 전문가급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을 구현하며 실사 사진부터 유화, 3D 렌더링, 픽셀아트, 인포그래픽 등을 넘나든다. 나노바나나는 이미 2억 건 이상의 이미지 편집을 수행하며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앤스로픽 또한 지난 17일 시각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 '클로드 디자인'을 새롭게 공개했다.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오픈스 4.7'을 기반으로 상위 멤버십 사용자를 시작으로 제공되고 있다. 클로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어로 설명한 디자인을 AI가 초안을 생성한 뒤, 사용자가 추가 대화와 주석, 직접편집, 슬라이더 조정 등을 통해 결과물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핸드오프(Handoff)' 구조로 완성된 디자인을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해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에 전달, 실제 구현까지 가능하다.

생성형 AI 기업들에서 연이어 출시되는 그래픽 AI 툴들에 전통적인 디자인 툴들도 AI로 향전하고 있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

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에이전트 크리에이티브'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어도비가 최근 공개한 '파이어플라이 AI 어시스턴트'는 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전반의 복잡한 단계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조율한다. 사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결과물을 설명하면 AI가 각 앱의 기능을 호출해 작업을 완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앱과 앱 사이의 벽을 허무는 '통합 실행력'을 핵심으로 하며, 창작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AI가 실제 실행을 담당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캔바(Canva)는 '캔바 AI 2.0'을 통해 디자인 플랫폼에서 AI 플랫폼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캔바의 차별점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최종 결과물 완성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에 있다. 캐머런 애덤스 캔바 CEO는 "대다수 AI 도구가 일회성 이미지 생성에 그치는 것과 달리, 캔바는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의도 라우팅' 기술을 통해 수정과 편집이 가능한 살아있는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삼성SDS,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완료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중단 시간 최소화 기술 적용
기존 140시간 → 34시간으로 감소
시스템 성능·데이터 운용 효율 개선



삼성SDS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AI 플랫폼·에이전트와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SDS

삼성SDS는 삼성전기의 차세대 ERP(기업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SDS가 2025년 9월 획득한 '라이즈 위드 SAP 프리미엄 서플라이어' 자격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프로젝트에는 '시스템 중단 시간 최소화(Downtime Optimized Conversion)' 기술이 적용됐다. 시스템 가동 상태에서 데이터 이관과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중단 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SAP HANA 데

이터베이스 기준 8.5TB 규모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단 시간은 기

존 140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감소했다. 차세대 ERP 도입에 따라 시스템 성능과 데이터 운용 효율도 개선됐다. 데이터 불륨 관리(DVM)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용량은 8.5TB에서 5.5TB로 축소됐으며, 제조·재무·원가 등 주요 영역의 처리 성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SDS는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ERP 전환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비스·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기 측은 이번 구축을 통해 ERP, MES, SCM 등 분산된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실시간 분석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사내 구성원 대상으로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AI Agent Lab' 과정을 상시 운영 중이다. 과정에 참여한 SK브로드밴드 구성원이 직접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 /SKB

SKB, 전 구성원 대상 AI 집중교육 실시

10월까지 'AI 에이전트 랩' 운영
중급 AI 역량 인력, 400명까지 확대

SK브로드밴드는 2026년 조직문화 핵심 키워드로 'AI와 일하기'와 '다이너믹 SKB'를 제시하고, 전 구성원의 AI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AI 레벨 인증제 도입과 자율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를 AI를 실제 업무 성

과로 연결하는 'AX(인공지능 전환) 추진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 과정 'AI 에이전트 랩'을 운영한다. 현재 약 9% 수준인 중급 이상 AI 역량 보유 인력을 20% 수준인 4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 직원이 초급 과정까지 이수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구글 클라우드, 국내기업과 '에이전트 AI' 전환 가속

카카오뱅크·CJ ENM 등과 협력

구글 클라우드가 '에이전트 AI' 전략을 앞세워 카카오뱅크, CJ ENM, 메가존소프트 등 국내 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을 본격화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22일 개막하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6'을 앞두고 국내 주요 고객 및 파트너의 생성형 AI 도입 성과를 발표했다.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AI'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루스 선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은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거

점"이라며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제미니가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해 전사 생산성 혁신에 나섰다. 약 1800명의 임직원이 문서 분석 자동화,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맞춘 AI 도구를 활용하며 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 환경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구조를 적용해 보안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 환경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CJ ENM은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콘텐츠 제작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 영상 생성 모델 '비오(Veo)'와 이미지 생성 모델 '이마젠(Imagen)'을 활용해 촬영 구도와 움직임 구현 등 제작 기술을 고도화한다. AI 단편 영화 '엠호텔'과 애니메이션 '갯비기' 등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 전 영역으로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인 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보안 분야 중심으로 기업 고객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별 맞춤형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시험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카페 내 위치추적기 거래 관리 강화

카페 서비스 공지 통해 안내
스토킹 등 강력범죄 악용 차단

네이버가 위치추적기 상품의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카페 서비스 내 거래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네이버는 20일 카페 서비스 공지를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반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와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앞으로 카페 내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오용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판매 중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최빛나 기자